Korea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경기도

WEF Issue & Insight

2025년 6월 26일, WEF 4차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koreago.net) 보기

AI 도입의 공백을 채우는 힘, '실전형 노하우'
(AI know-how is the final piece of the adoption puzzle. Here's why)

- **우리는 지금 실용적 AI 활용 능력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노하우 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하우는 디지털 지식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공유되거나 수익화될 수 있습니다.**
-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노하우는 기술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 **현장의 AI 활용 지식이 공유되면 기술의 실질적 쓰임새가 넓어지고 기술 민주화가 촉진됩니다.**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3월 27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

보잔카 비타노바(Bozhanka Vitanova)

팀리프트(TeamLift) 공동창업자 겸 CEO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셰이퍼 커뮤니티(Global Shaper Community) 동문

골드만삭스는 올해 AI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중에 출시된 AI 솔루션은 5만 개를 넘지만,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례는 여전히 드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전 노하우가 현장에 아직 충분히 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출 제안서를 더 잘 쓰려면 어떤 프롬프트(지시어)가 효과적인가?", "어떤 업무 흐름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법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AI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용 능력'입니다.

'노하우 경제'의 부상: 실전 지식이 자산이 되는 시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역량이 곧 자산이 되는 '노하우 경제(Know-how economy)'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체계화된 노하우는 디지털 지식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공유되거나 수익화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업들이 보여주는 변화

이미 여러 기업이 AI를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AI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에 맞게 '정착'시키고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유럽의 홍보업체인 '사비온 레이(Savion Ray)'는 시장 조사 시간을 96% 단축하고 영상 편집 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 미만으로 줄여 추가 인력 없이 고객사를 67% 늘렸습니다.

- 캐나다의 제과점인 '얌 베이커리(Yum Bakery)'는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자동화해 생산 주기마다 50시간을 절약하고 폐기물도 줄였습니다.

- 뉴욕의 소비재 스타트업 '와쿠(Waku)'는 AI를 '가상의 여섯 번째 직원'처럼 활용해 재무 분석부터 리서치, 이메일 작성, 발표 자료 제작까지 다양한 지식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 영국의 네트워크 기업 '티알엔(TRN)'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실시간 사용자 니즈에 맞춰 조정하여 이메일 열람률과 이벤트 참

여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기업들이 참고하고 재현할 수 있는 'AI 활용 설계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 개발사들 입장에서 실전 사례와 결과 중심의 적용법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솔루션의 시장 도입을 앞당길 기회를 열어줍니다.**

기술 민주화의 핵심, AI 노하우

AI의 진정한 대중화는 '누가 쓰느냐'보다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확산시키느냐가 본질입니다.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공유되기 시작하면 기술을 둘러싼 격차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는 노하우가 반드시 기술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코딩 지식은 없지만 재고 관리에 강점을 가진 매장 관리자도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 과정을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효과를 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AI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실무자들까지 노하우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AI 관련 기술의 숙련도보다 'AI 활용 경험의 질'이 더 큰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LinkedI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의 39%는 AI 리터러시 못지않게 '적응력'이나 '창의력' 같은 비기술적 역량을 핵심 인재의 요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실전형 감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을 보여줍니다.

AI 노하우 자산화의 전제 조건

AI 활용법을 자산으로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떤 AI 활용법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노하우 간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응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측정 지표**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활용 사례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 법적 장치**도 필수적입니다.

AI 솔루션은 거래 가능한 자원이자, AI 생태계 전체의 성숙도를 높이는 표준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주역이 되는 길

우리는 지금 AI 기술 도입의 '두 번째 물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활용'이 있습니다.**

AI 활용 노하우의 공유와 확산은 AI 기술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열쇠입니다.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AI 기술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3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챗GPT(ChatGPT), 클로드(Claude), 그록(Grok)과 같은 AI 기술은 이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용자의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가 새로운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AI 사용법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학습하는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디지털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힘

이 됩니다. **이제는 AI 기술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WEF 해당 사이트 및 관련 동영상 보기